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영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

김성원 (총신대학교 강사)

I. 연구의 목적

현대의 빠른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에 대한 관점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현대 가정은 최근 생겨난 다양한 가정의 형태와 잘못된 세계관으로 말미암은 역기능 문제들(정정숙, 2005, p. 12-20; 황지영, 2012, pp. 263-265)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발견되는데, 기독교 가정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가족 구성원들은 삶과 자녀양육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지 못하거나 출세지향적, 물질적, 실용적인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혼돈된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이숙미·김성희, 2009, p. 724; 유화자, 2005, p. 171; 조혜정, 2010, pp. 266-267; 한영진, 2004, p. 7).

대한민국은 자녀교육이 부모들의 존재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모들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자녀를 위해 쏟고 있다(예. 빛 저가며 애들 사교육... '에듀푸어' 82만 가구, 2012년 8월 27일, 조선일보; 오늘은 어버이날... 이 시대, 부모로 산다는 것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싶다는 게 부모 마음이라더니 모았던 적금을 사교육비를 대려고 혈기까지 고민은 길지 않았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힘쓰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죄인이 됐다.” 2013년 5월 8일, 중앙일보). 그러나 이런 부모들의 헌신만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묻는다면 흔쾌히 긍정적 대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문제점이다. 이러한 일반교육의 현실 앞에서 기독교교육의 현실과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실천에 관하여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인 부모들은 분석과 비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유화자, 2005, p. 175). 그 동안 자녀의 영적 발달을 위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다(Boyatzis, 2004, p. 182).

본 연구는 기독교 자녀양육을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적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기독교적 자녀양육 실천으로 나누어 설문하고 분석하였다. 자녀관계 및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은 기독교적 자녀양육의 초석임을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바 있다(배은주, 2007, pp. 102-109; 양금희, 2011, p. 336; 정명자, 2005, p. 312; May, Posterski, Stonehouse, & Cannell, 2010, p. 205). 그 이유는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느끼지 않는 자녀는 부모와 동일시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부모와 건강한 사랑의 유대관계가 없을 때 자녀는 부모의 지도에 대해 화, 분개, 적대감으로 반응할 수 있다(Campbell, 2003, p. 135). 배은주(2007)는 기독교가정의 부성부재를 물리적, 관계적, 영적 부성부재로 구분하고 각각 유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pp. 102-109). 특별히 관계적 부성부재는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미지화 하는데 심리적 거부감 또는 분노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며, 아버지의 영적 무

능력 역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pp. 105-108). 그러므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녀의 미래를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명자, 2005, p. 312).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기독교 자녀양육의 원리를 이해하는 인식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인 실천은 자녀 이해 및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이어 기독교 자녀양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가정은 기독교교육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퇴색해 가고 있고, 신앙교육의 실천을 잘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박행림, 2011, p. 202). 고도의 문명 발달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들은 무신론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세상 문화에 대안 없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인 부모의 중요한 과제이다(유화자, 2005, p. 171; 조혜정, 2010, pp. 266-267). 김난예(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가족 건강성 수준에 따라 신앙인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높다하여도 신앙인격을 형성하는 것과는 별개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결과에 대해 가족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을 잘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가족 유대를 갖는다 해도 신앙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 훈계 등의 별도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pp. 223-224). 박은혜(2010)는 특별히 기독교 가정 내의 가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치교육을 실시할 기관들과의 협조, 가정의 가치교육에 대한 책임, 가치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탐색을 요구한 바 있다(p. 367).

이숙미·김성희(2009)에 의하면 최근 기독교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흐름은 기독교 부모교육과 관련된 실태 및 요구조사, 기독교 부모교육에 대한 이론 정립과 부모의 역할과 관련한 문헌연구,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물이 이론적 연구이며 실제와 관련된 연구들도 이론적 기초가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p. 724). 또한 기독교 부모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중심(김명희, 2005; 김성애, 2011; 김유진, 2013; 김효원, 2006; 박순옥, 2012; 오미영, 2008; 오미영, 2009; 원희정, 2007; 윤혜림, 2013; 이한나, 2009; 정희정, 2011; 조혜정, 2007; 최선옥, 2007)이라는 특징이 있다. 기독교 부모교육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대부분 이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는(김성애, 2011, p. 15; 마현아, 2007, pp. 22-23; 원희정, 2007, p. 38; 오미영, 2008, pp. 21-22; 이한나, 2008, pp. 23-24) 특징이 있다. 연구 도구를 변형하거나 그 연구대상이 바뀔 경우에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두 가지 검사 중 한 가지 검사만 했고 또는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도구의 취약성은 연구자체와 그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본 연구는 전술한 시대적인 아픔과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기독교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과 실천을 파악함으로써 기독교 가정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독교적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및 부모 변인을 파악하여 보다 바람직한 성경적 자녀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실증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구체적인 연구 문제

를 진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독교인 부모들의 자녀 이해 및 자녀와의 관계, 인식, 실천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신앙적 변인에 따라 기독교인 부모들의 자녀와의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독교인 부모들의 자녀 이해 및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 기독교 자녀양육의 실천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인 부모 2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성별로 구분하면 아버지 80명(31.7%)과 어머니 172명(68.3%), 신앙경력은 10년 미만과 10-19년이 각각 38명, 20-29년 48명, 30-39년 47명, 40년 이상 10명, 모태신앙이 71명이었다.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항목	N	%		항목	N	%
성별	남	80	31.7	신앙경력	10년 미만	38	15.1
	여	172	68.3		10-19년	38	15.1
연령	21-29세	2	0.8	20-29년	48	19.0	
	30-39세	59	23.4	30-39년	47	18.7	
	40-49세	131	52.0	40년 이상	10	4.0	
	50-59세	53	21.0	모태신앙	71	28.2	
	60-69세	5	2.0				
	70세 이상	2	0.8				
거주지	서울기타	107	42.5	직분	직분없음	43	17.1
	경기	100	39.7		집사	150	59.5
	서울강남	36	14.3		안수집사	11	4.4
	충청	3	1.2		권사	14	5.6
	기타	2	0.8		교역자/사모	30	11.9
	무응답	4	1.6		기타	4	1.6
학력	고등학교	19	7.5	신앙정도	매우 좋지 않다	11	4.4
	대학교	169	67.1		좋은 편 아니다	18	17.1
	대학원 석사	58	23.0		보통이다	106	42.1
	대학원 박사	6	2.4		좋은 편이다	102	40.5
월소득	200만원 이하	16	6.3	자녀의 연령	매우 좋다	15	6.0
	200-300만원	43	17.1		영유아	54	21.4
	300-400만원	51	20.2		초등학생	48	19.0
	400-500만원	45	17.9		중학생	55	21.8
	500-600만원	45	17.9		고등학생	35	13.9
	600-700만원	18	7.1		대학생	40	15.9
	700만원 이상	25	9.9		출가 전 성인	17	6.7
	무응답	9	3.6		출가한 성인	3	1.2
부부신앙	부부기독교인	204	81.0	자녀수	1명	60	23.8
	부만 기독교인	4	1.6		2명	155	61.5
	모만 기독교인	38	15.1		3명	32	12.7
	기타	6	2.4		4명 또는 이상	5	2.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기독교 부모교육의 이론과 선행 측정도구에 기초하여 문항을 제작한 후 교회교육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교육 박사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마더와이즈 강사로 섬기는 사모에게 내용타당도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개발되었다. 측정도구는 자녀 이해 및 관계 7문항, 기독교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9문항, 기독교 자녀양육 실천 12문항으로 총 28문항이다. 본 조사의 대상과 동일한 기독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서 문항 이해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파악했고, Cronbach α 를 이용한 신뢰도 지수를 구하였더니 .88이었다.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이해 및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기독교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부모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월 평균 소득, 신앙경력, 교회 직분, 신앙 정도, 부부 신앙,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른 기독교 자녀양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본 연구는 성별,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월 평균 소득, 신앙경력, 교회 직분, 신앙정도, 부부 신앙, 자녀 연령을 파악하였다. 부모의 성별에 따른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거주지, 월 평균 소득, 자녀 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는 <표 2>와 같이 기독교 양육의 인식($F=5.54, p<.01$), 실천($F=3.76, p<.05$), 전체 총점($F=4.21, p<.01$)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인식에 있어서는 대학 졸업자($M=24.74, SD=2.98$)와 대학원 석사 학위자($M=26.29, SD=2.44$)간에, 실천에 있어서는 대학 졸업자($M=35.48, SD=5.48$)와 대학원 석사 학위자($M=37.98, SD=4.95$)간에, 그리고 총점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M=279.79, SD=10.70$), 대학 졸업자($M=82.76, SD=8.92$)와 대학원 석사 학위자($M=86.79, SD=8.16$)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

구분	고등학교 ^a <i>M(SD)</i>	대학교 ^b <i>M(SD)</i>	대학원석사 ^c <i>M(SD)</i>	대학원박사 ^d <i>M(SD)</i>	<i>F</i>	<i>Scheffe</i> 사후검증
관계	21.21(3.05)	22.54(2.98)	22.52(2.77)	21.67(2.94)	1.33	
인식	24.21(3.72)	24.74(2.98)	26.29(2.44)	27.00(2.28)	5.54**	b<c

실천	34.37(5.89)	35.48(5.48)	37.98(4.95)	35.83(3.60)	3.76*	b<c
총점	79.79(10.70)	82.76(8.92)	86.79(8.16)	84.50(5.82)	4.21**	a,b<c

부모의 신앙경력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기독교 양육의 인식($F= 13.94, p< .001$), 실천($F= 7.50, p< .001$), 전체 총점($F= 6.29, p< .001$)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인식에 있어서는 10년 미만($M= 21.92, SD= 2.91$)과 10-19년($M= 25.18, SD= 3.07$), 20-29년($M= 25.44, SD= 2.21$), 30-39년($M= 25.89, SD= 2.74$), 40년 이상($M= 27.30, SD= 2.83$), 모태신앙($M= 25.73, SD= 2.51$)간에, 실천에 있어서는 10년 미만($M= 31.34, SD= 5.52$)과 10-19년($M= 36.84, SD= 35.67$), 20-29년($M= 36.54, SD= 5.10$), 30-39년($M= 37.32, SD= 4.77$), 모태신앙($M= 36.54, SD= 4.91$)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총점에 있어서는 10년 미만($M= 76.39, SD= 8.81$)과 10-19년($M= 84.82, SD= 9.75$), 20-29년($M= 83.58, SD= 8.06$), 30-39년($M= 85.77, SD= 8.50$), 40년 이상($M= 87.40, SD= 9.35$), 모태신앙($M= 84.39, SD= 8.0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부모의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

구분	10년미만 ^a <i>M(SD)</i>	10-19년 ^b <i>M(SD)</i>	20-29년 ^c <i>M(SD)</i>	30-39년 ^d <i>M(SD)</i>	40년이상 ^e <i>M(SD)</i>	모태신앙 ^f <i>M(SD)</i>	<i>F</i>	<i>Scheffe</i> 사후검증
관계	23.37 (2.88)	22.79 (2.74)	21.60 (2.98)	22.55 (3.15)	22.70 (2.79)	22.13 (2.83)	1.86	
인식	21.92 (2.91)	25.18 (3.07)	25.44 (2.21)	25.89 (2.74)	27.30 (2.83)	25.73 (2.51)	13.94***	a<b,c,d,e,f
실천	31.34 (5.52)	36.84 (5.67)	36.54 (5.10)	37.32 (4.77)	37.40 (4.72)	36.54 (4.91)	7.50***	a<b,c,d,f
총점	76.39 (8.81)	84.82 (9.75)	83.58 (8.06)	85.77 (8.50)	87.40 (9.35)	84.39 (8.03)	6.29***	a<b,c,d,e,f

부모의 직분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변량 분석 및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기독교 양육의 인식($F= 15.41, p< .001$), 실천($F= 7.61, p< .001$), 전체 총점($F= 8.21, p< .001$)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인식에 있어서는 직분이 없는 부모($M= 22.53, SD= 3.24$)와 집사($M= 25.14, SD= 2.49$), 권사($M= 26.43, SD= 2.95$), 목회자/사모($M= 27.83, SD= 1.95$)간에 그리고 집사와 목회자/사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실천에 있어서는 직분이 없는 부모($M= 33.02, SD= 5.60$)와 권사($M= 38.36, SD= 6.26$), 목회자/사모($M= 40.07, SD= 4.25$)간에 그리고 집사($M= 35.69, SD= 5.00$)와 목회자/사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총점에 있어서도 직분이 없는 부모($M= 78.21, SD= 9.11$)와 권사($M= 86.79, SD= 10.44$), 목회자/사모($M= 90.42, SD= 7.52$)간에 그리고 집사($M= 83.27, SD= 7.99$)와 목회자/사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부모의 직분에 따른 차이

구분	무 ^a M(SD)	집사 ^b M(SD)	안수집사 ^c M(SD)	권사 ^d M(SD)	목회자/ 사모 ^e M(SD)	기타 ^f M(SD)	F	Scheffe 사후검증
관계	22.65 (2.90)	22.44 (2.79)	20.90 (3.24)	22.00 (3.46)	22.53 (3.13)	23.75 (4.99)	0.86	
인식	22.53 (3.24)	25.14 (2.49)	25.36 (2.62)	26.43 (2.95)	27.83 (1.95)	26.00 (4.40)	15.41***	a<b,d,e b<e
실천	33.02 (5.60)	35.69 (5.00)	36.27 (5.46)	38.36 (6.26)	40.07 (4.25)	38.75 (5.50)	7.61***	a<d,e b<e
총점	78.21 (9.11)	83.27 (7.99)	82.54 (10.38)	86.79 (10.44)	90.43 (7.52)	88.50 (10.41)	8.21***	a<b,e b<e

부모의 신앙정도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기독교 양육의 인식($F= 30.64, p< .001$), 실천($F= 20.98, p< .001$), 전체 총점($F= 19.99, p< .001$)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인식, 실천, 총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신앙이 좋지 않은 부모(인식 $M= 22.45, SD= 4.59$; 실천 $M= 33.36, SD= 7.59$; 총점 $M= 78.82, SD= 9.30$)와 신앙이 좋은 편인 부모(인식 $M= 26.46, SD= 2.13$; 실천 $M= 38.13, SD= 4.49$; 총점 $M= 92.60, SD= 5.36$), 신앙이 매우 좋은 부모(인식 $M= 28.13, SD= 1.77$; 실천 $M= 41.40, SD= 3.56$; 총점 $M= 92.60, SD= 5.36$) 간에 그리고 신앙이 좋은 편이 아닌 부모(인식 $M= 21.17, SD= 2.75$; 실천 $M= 29.94, SD= 5.49$; 총점 $M= 74.78, SD= 9.30$)와 신앙이 보통인 부모(인식 $M= 24.33, SD= 2.51$; 실천 $M= 34.44, SD= 4.65$; 총점 $M= 80.74, SD= 7.98$), 신앙이 좋은 편인 부모, 신앙이 매우 좋은 부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앙이 보통인 부모와 신앙이 좋은 편인 부모, 신앙이 매우 좋은 부모 간에도 인식, 실천, 총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부모의 신앙정도에 따른 차이

구분	좋지않음 ^a M(SD)	좋은편아님 ^b M(SD)	보통 ^c M(SD)	좋은 편 ^d M(SD)	매우 좋음 ^e M(SD)	F	Scheffe 사후검증
관계	23.00 (3.26)	23.67 (2.43)	21.96 (3.17)	22.51 (2.70)	23.27 (2.84)	1.78	
인식	22.45 (4.59)	21.17 (2.75)	24.33 (2.51)	26.46 (2.13)	28.13 (1.77)	30.64***	a<d,e b<c,d,e c<d,e
실천	33.36 (7.59)	29.94 (5.49)	34.44 (4.65)	38.13 (4.49)	41.40 (3.56)	20.98***	a<d,e b<c,d,e c<d,e
총점	78.82 (9.30)	74.78 (9.30)	80.74 (7.98)	87.10 (7.71)	92.60 (5.36)	19.99***	a<d,e b<c,d,e c<d,e

부부의 신앙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기독교 양육의 인식($F= 12.33, p< .001$), 실천($F= 5.94, p< .001$), 전체 총점($F= 5.33, p< .001$)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인식에서는 부부 모두 기독교인 부모($M= 25.62, SD= 2.70$)와

어머니만 기독교인 부모($M= 22.89, SD= 3.18$), 기타($M= 22.17, SD= 4.36$)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실천과 총점에서 공통적으로 부부 모두 기독교인 부모(실천 $M= 36.66, SD= 5.27$; 총점 $M= 84.57, SD= 8.89$)와 어머니만 기독교인 부모(실천 $M= 32.97, SD= 5.13$; 총점 $M= 79.08, SD= 8.41$)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부부 신앙에 따른 차이

구분	부부기독교인 ^a <i>M(SD)</i>	부만기독교인 ^b <i>M(SD)</i>	모만기독교인 ^c <i>M(SD)</i>	기타 ^d <i>M(SD)</i>	<i>F</i>	<i>Scheffe</i> 사후검증
관계	22.29(2.97)	22.75(3.50)	23.21(2.67)	21.50(3.21)	1.27	
인식	25.62(2.70)	24.75(1.26)	22.89(3.18)	22.17(4.36)	12.33***	a>c,d
실천	36.66(5.27)	33.25(5.32)	32.97(5.13)	33.67(7.17)	5.94***	a>c
총점	84.57(8.89)	80.75(2.75)	79.08(8.41)	77.33(9.56)	5.33***	a>c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기독교 양육의 실천($F= 4.25, p< .001$)과 총점($F= 2.63, p< .05$)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실천 영역에서만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M= 33.85, SD= 5.79$)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M= 38.29, SD= 5.40$)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

구분	영유아 ^a <i>M(SD)</i>	초등학생 ^b <i>M(SD)</i>	중학생 ^c <i>M(SD)</i>	고등학생 ^d <i>M(SD)</i>	대학생 ^e <i>M(SD)</i>	성인 ^f <i>M(SD)</i>	출가한 성인 ^g <i>M(SD)</i>	<i>F</i>	<i>Scheffe</i> 사후검증
관계	21.98 (3.32)	22.46 (2.90)	22.60 (2.72)	23.11 (3.05)	21.73 (2.66)	23.47 (2.65)	21.33 (3.21)	1.38	
인식	25.70 (2.71)	25.44 (2.64)	24.84 (3.18)	24.91 (3.06)	24.25 (3.20)	25.29 (3.37)	27.00 (2.65)	1.32	
실천	38.29 (5.40)	35.27 (4.85)	34.93 (5.00)	36.09 (5.25)	33.85 (5.79)	37.65 (5.42)	41.00 (4.58)	4.25***	a>e
총점	86.07 (8.88)	83.17 (8.27)	82.36 (8.61)	84.11 (9.41)	79.83 (9.16)	86.41 (8.87)	89.33 (10.02)	2.63*	

기독교 자녀양육의 세부항목인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독교 자녀양육에 대한 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관계와 실천($r= .25, p< .01$), 부모-자녀 관계와 총점($r= .52, p< .01$), 인식과 실천($r= .73, p< .01$), 인식과 총점($r= .81, p< .01$), 실천과 총점($r= .93, p< .01$)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8> 부모-자녀관계, 기독교 자녀양육 인식 및 실천과의 관계

구분	관계	인식	실천	총점
관계		.11	.25**	.52**
인식			.73**	.81**

IV. 논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신앙적인 변인에 의한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나 자녀이해는 부모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수입, 자녀수 등의 기본 변인이나 신앙에 관련된 변인들은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차이를 만들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자녀 관계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보지 않았던 좀 더 근원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부모의 성격이나 심리적 안정성, 가치관, 부모훈련, 부모의 원가족 등을 변인으로 삼아 영향력을 밝힐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 실천, 총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에 있어서는 대학을 졸업한 부모보다 대학원 석사 학위를 가진 부모 집단이 높았으며, 총점과 실천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부모보다 대학원 석사 학위를 가진 부모 집단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 양육 변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만 3-5세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김유진(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신념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교육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의 차이가 나지 않았던 반면, 어머니 경우 학력에 따라서 전체 대 개인 강조 신념과 성숙 대 환경 강조 신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인성 대 지적 성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 39). 김미라(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자녀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인의 경우 부모 모두 교육정도에 따라 4가지 양육태도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비기독교인 아버지의 경우 학력에 따라 자율적 태도에서, 어머니의 경우 통제적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pp. 38-40, 43-45). 오미영(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 결과 대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에게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p. 56).

학력에 따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유아 부모간의 책임의식과 역할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윤혜림(2013)의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한 부모 집단내에서 기독교인의 책임의식과 역할만족도가 비기독교인에 비해 의미있게 높게 나왔다(p. 53, 77). 연구자는 논의 부분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라 부모역할 책임의식과 부모역할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점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부모의 학력이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력이 다른 집단 간의 책임의식과 만족도가 비교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고 통계적인 근거 없이 학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것은 바른 해석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부모의 학력이 부모역할에 영향력이 있다고는 추정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신앙경력, 교회 직분, 신앙 정도, 부부 신앙에 따라서 기독교적 자녀양육의 인식, 실천, 그리고 총점(부모-자녀 관계, 인식, 실천의 합)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을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신앙경력이 오래될수록, 직분이 없거나 헌신도가 덜 요구되는 직분을 가진 부모보다는 좀 더 높은 헌신도를 요구하는 직분을 가진 부모일수록, 신앙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독교인인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인식, 실천, 총점 영

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차이를 종합적으로 잘 드러내는 결과이다.

윤혜림(2013)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부모의 부모역할 책임 의식과 만족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p. 34, 42). 백필성(2008)은 부모의 신앙 성숙도가 자녀양육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부모의 신앙성숙도가 애정자율형과 방임형의 양육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과잉보호형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독재형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 38). 아울러, 부모의 신앙성숙도는 의사소통 유형과도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부모의 신앙성숙도와 회유형,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비난형과 산만형 의사소통 유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36). 이한나(2009)는 부모의 신앙 경력에 따라 자녀의 신앙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신앙 경력에 따라 신앙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 전영역-가정예배, 기도, 성경, 찬양, 교회학교, 신앙의 모범-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몇몇 영역에서 1년 이하와 2-5년 사이 두 집단 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앙경력이 오래 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pp. 42-44). 또한 부모의 직분에 따른 자녀의 신앙발달을 위한 부모역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분에 따라서 가정예배, 기도, 성경, 찬양, 교회학교, 신앙의 모범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어머니의 직분에 따라서는 신앙의 모범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p. 45-46). 조혜정(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모태신앙 여부와 신앙경력, 가정내 신앙갈등 유무, 교회 직분에 따라 자녀의 신앙교육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 부모가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 부모의 신앙경력이 짧은 경우, 교회의 직분이 없는 세례교인인 경우 자녀의 예배출석률, 신앙적 대화, 교회교육 참여도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pp. 319-323).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회심 여부가 부모의 신앙교육 정도와 별개일 수 있음,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메시지만 제공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인 원인의 파악은 어려웠다. 가정예배의 유무와 빈도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하나님 개념 중 전능하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개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보인 연구 결과(이성복, 2011, pp. 282-283) 또한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세속적 가치관, 다원주의, 인본주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서 가정에서 말씀을 직접 가르칠 것을 강조한 학자들도 있다. 자녀들을 말씀교육을 통해 세상에 맞서 싸우며 살아갈 능력을 체득해 갈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재로는 교회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확인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가 추천된 바 있다(이광호, 2012, p. 117). 유사하게, 장신근(2011) 역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 위에 신앙의 정체성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절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하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등에 담긴 기독교 신앙의 핵심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258).

본 연구에서 자녀연령에 따라 기독교 자녀양육 실천 영역에서 점수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

별히 영유아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중 특이한 점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 인식, 기독교 자녀양육 실천 모든 영역에서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보다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출가하기 전 성인자녀나 출가한 성인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서도 각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율성을 보장 받기 원하면서 부모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추론을 하였다. 임창복(2002)은 가족생활주기를 8단계로 나누고 그 중 6번째 단계를 첫 자녀가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로 보았다. 교회는 이 단계의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로서 상호지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부모 곁을 떠나는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와 교회의 부조리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세우고, 직업과 배우자 선택 및 자녀들의 결혼 준비교육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pp. 69-70). 연구자는 다른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낸 청년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의 지도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신앙의 다양한 측면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적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차이를 만들지 못한 반면, 신앙과 관련된 모든 변인들이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에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좀 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원리를 실천하며 자녀를 영적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름길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기독교 자녀양육 인식, 기독교 자녀양육 실천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통하여, 자녀 양육의 부르심은 전 영역이 연결되고 통합되는 과정임을 발견하였다.

Ten Elshof(2001)는 가족생애교육(Family life education)은 가정 중심, 교회의 지원, 성경적인 신학,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부가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들의 언약적 과제는 자녀가 창조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도록 훈련하는 쉽지 않은 과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p. 195).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과 축복이 있는 가정과 다음세대가 병들어가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는 기독교교육의 현장 중심에 있는 가정과 부모를 훈련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고, 가정이 신앙교육의 첫 번째 장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박상진, 2013, pp.198). 논문을 통한 나타난 결론 -기독교 자녀양육의 출발점은 부모의 신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논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난예 (2012). 건강가족성과 자녀의 신앙인격 특성. **기독교교육논총**, 29, 207-236.
 김명희 (2005). **영유아기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부천.

- 김미라 (2006). 부모의 신앙유무가 유아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김성애 (2011). 유아기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기준과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김유진 (2013). 부모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김효원 (2006). 신앙공동체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유아기 부모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
- 마현아 (2007).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기독교 부모의 인식과 요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박상진 (2013). 기독교교육의 장: 어디에서 교육하는가? 고원석 외 5. 기독교교육개론 (pp. 187-223).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박순옥 (2012). 자녀의 신앙발달을 위한 부모상담 역할 연구: 요구도와 양육실태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부산.
- 박은혜 (2010). 기독 학부모의 자녀 양육론: 기독교적 가치 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24, 363-394.
- 박행림 (2011). 현대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과 기독교가정생활교육. 복음과 실천신학, 23, 186-219.
- 배은주 (2010). 기독교가정의 부성부재와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성결대학교, 안양.
- 백필성 (2008). 부모의 신앙 성숙도와 의사소통 유형 및 자녀양육 태도와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오미영 (2008). 기독교 유아교육개관에서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태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오미영 (2009). 기독교 영. 유아 부모의 생태학적 변인에 따른 자존감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원희정 (2007). 교회학교 유아의 신앙발달을 위한 부모교육의 인식 및 실태조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유화자 (2005).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 신학정론, 23(1), 171-190.
- 윤혜림 (2013). 기독교신앙 유무에 따른 부모역할 책임의식 및 만족도 비교 결과의 부모교육적 함의. 부산: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 (2012). '신앙교육'을 위한 교회와 가정의 자세. 진리와 학문의 세계, 26, 109-127.
- 이성복 (2011). 유아를 둔 기독교 가정의 가정 예배 실태와 그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관한 연구. 칼빈논단, 31, 259-291.
- 이숙미·김성희 (2009).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723-746.

- 이한나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미출판 석사 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 임창복 (2002).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장신근 (2011). **공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정명자 (2005).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기본적 이해. **광신논단**, 14, 281-315.
- 정정숙 (2005). 현대 가정의 위기와 정체성. **기독교교육정보**, 10, 11-35.
- 정희정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 연구. **신앙과 학문**, 16(4), 195-222.
- 조혜정 (2007). 부모-자녀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관련 변인에 관한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18, 311-330.
- 조혜정 (2010).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 부모교육을 위한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27, 263-289.
- 최선옥 (2007).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유아부모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안양.
- 한영진 (2004). 기독교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신앙생활 평가도구개발 기초연구. **부모교육연구**, 1(1), 5-23.
- 황지영 (2012). 기독교 가정교육. 강용원 편. **기독교교육학 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 Boyatzis, C. J. (2004). The co-construction of spiritual meaning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D. Ratcliff (Ed.), *Children's spirituality: Christian perspectives, research, and application* (pp. 182-200). Eugene, OR: Cascade Books.
- Campbell, R. (2003). *How to really love your child*. Colorado Springs, CO: Life Journey.
- May, S., Posterski, B., Stonehouse, C., & Cannell, L. (2005). *Children matter: Celebrating their place in the church, family, and communit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Ten Elshof, J (2001). Family life education. In Michael J. Anthony(Ed.), *Introducing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twenty-fist century*. (pp. 195-204).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빛 저가며 애들 사교육... '에듀푸어' 82만 가구 (2012년 08월 27일). 조선일보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7/2012082700519.html
- 오늘은 어버이날... 이 시대, 부모로 산다는 것은 (2013년 05월 08일).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457663

김성원 박사님의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영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 논평

강미랑 (총신대학교 강사)

김성원 박사님은 현 시대 세속화된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신앙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지님을 인식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을 통하여 양적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녀교육을 부모-자녀 관계, 기독교적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적 자녀양육 실천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것을 분석하며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연구목적 진술에 앞서 서론적 언급과 선행연구를 다루었고, 이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과 실천을 파악함으로써 기독교 가정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또한 기독교적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및 부모 변인을 파악하여 보다 바람직한 성경적 자녀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연구문제를 세 가지로 진술하는데, 첫째로 현상을 파악하고, 인식과 실천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하고, 그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독교인 부모 252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 표본집단은 아버지 80명, 어머니 172명, 신앙경력이 10년미만에서 40년이상의 모태신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거주지, 학력, 월소득, 부부의 신앙, 신앙경력, 직분, 신앙정도, 자녀의 연령, 자녀수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있습니다. 측정도구로는 필자가 기독교 부모교육의 이론과 선행 측정도구에 기초해 문항작성 후 전문가들에게 타당도 검사를 의뢰해 신뢰도를 높였고,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논의된 사항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신앙적 변인에 의한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근원적 요인들을 찾아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학력에 따른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 총점”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경력, 교회직분, 신앙정도, 부부신앙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기독교 자녀양육 실천 영역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대부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신앙과 관련된 변인들은 기독교 자녀양육의 인식과 실천에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며, 기독교 자녀양육의 출발점은 부모의 신앙임을 강조하며 결론짓습니다.

논자는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양적연구의 성실한 과정과 결과에 감사를 드리며, 명확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서 어떤 가설에서 출발한 것인가요? 2. 설문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와 인식과 실천의 차이로 구분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며,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3.결과의 분석에 있어

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신앙적 변인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총점에 변화를 주었는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의 학력은 어떤 변인인가요? 결론에서는 신앙적 변인들이 강조되며 끝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논자는 본 연구가 양적 연구의 수고를 잘 감당하여 부모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시에 양적 연구로서 더욱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연구목적과 가설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 설계단계에서 설문문의 문항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여 논리적 비약이 없는 촘촘한 결론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